

교과과정 전면개편 진행

필수과목 최소화, 학생의 선택확대

우리학교 학부 교과과정에 대한 전면 개편작업이 진행중이다.

대학의 제도개혁과 95학년도 문교부에서 시행하는 대학종합평가 인정제시행에 맞추고 그 준비의 일환으로 제기되어 진행되고 있는 이번 교과과정개편은 일부제도 개선이나 부분적인 개편에 그치지 않고 과목과목, 전공별, 전공상, 학제 인정방법등 전면적이고 대대적인 개편이 이루어질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위원회, 교수처등 제정당국은 이번 교과과정개편을 위해 서울캠퍼스에서 지난 2월 3일 전체교과위원회를 열어 교과과정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과학교육에 임할 대학의 각 학과별로 활발한 개편작업이 진행됨에 따라 대학의 개편시안을 토대로 종합적인 교과과정개편안을 마련해 이번2학기부터 시행하기로 시행할 방침이다.

우리학교 기획위원회 이철호 교수(경제대 회계학과)는 "그간 대학의 교과과정이 행정 편의주의, 교수중심의 교과과정 개설을 통한 불합리적인 교수행위로 인하여 학부에서 소외되어, 여러를 정도의 전공과목 선택권, 학과와의 패색으로 인한 학생들의 교과목 선택권

제한, 제한이 없던 고려되지 않은 교과목중심으로 인한 시간상의 비효율성과 그로인한 수강 부담과 강의 부실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히고 "대학의 교과과정은 이번 대학종합평가를 계기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학문의 국제화, 다양화, 개방화 추세에 발맞추어 보다 합리적인 교과과정을 마련할 것"이라고 교과과정개편의 취지를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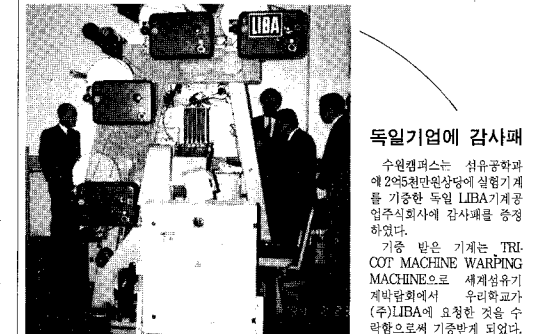
행정당국에서 마련한 이번 교과과정개편의 핵심은 교양필수과목과 학부의 필수과목과 필수이외의 학과 선택과목에 대한 원전개편 등 두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이번에 마련된 교과과정 개편 지침에 따르면 교양필수 7과목에서 전공필수 5과목으로 학부 필수과목의 개편은 필수이외의 학과 선택과목에 대한 원전개편 등 두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이제부터는 행정 편의주의, 교수중심의 교과과정 개설을 통한 불합리적인 교수행위로 인하여 학부에서 소외되어, 여러를 정도의 전공과목 선택권, 학과와의 패색으로 인한 학생들의 교과목 선택권

이 여러개 개설되는 불합리한 교과목으로 많은 남자가 뒤따랐다"고 지적하고 "학과에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과과정을 개편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성적평가의 표준화도 학제 인도의 제도적 방지, 강의제도의 개혁, 장학금의 운영(10%), 가점제와 병행 등 학제적 전격수정사항을 적용해 제도적 보완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독일기업에 감사패 수여된 학생들

연구처, 교수연구비 지원 새단장

수원캠퍼스 연구처는 교수들의 연구활동 활성화를 위해 연구비 지원에 관한 사업들을 새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 사업에는 학술도서 저술 활동 지원사업, 국제학술지 게재 논문 투고료 지원사업, 대학 연구에 대한 연구기재 구매 및 연구활동의 지원사업 등이 포함된다.

이 사업에는 학술도서 저술 활동 지원사업, 국제학술지 게재 논문 투고료 지원사업, 대학 연구에 대한 연구기재 구매 및 연구활동의 지원사업 등이 포함된다.



분위기를 호리는 대학가 유흥업 학자추, 업주에게 업종변경 요구

94년도부터 대학가 주변 업종변경 및 설치 규정이 강화되어 따라 업주들이 업종을 변경하거나 새로 설치해 대학가 분위기를 호려주고 있다.

분위기의 규정에 따르면 대학가 주변에는 2층이상의 상점구역을 50미터의 절대구역이 정해져 있어 이 구역내에서는 업주가 마음대로 업종을 하거나 새로이 업종을 설치할 수 없다.

그러나 올해의 규정에 따르면 상점구역을 절대구역이 해제되어 학교 방벽에 따라 업종규제가 불가능해졌다.

재학생 등록현황 54.5%

등록연기시 연기원 제출

94학년도 1학기 재학생 등록현황이 54.5% 나타났다.

정리하는 2월 28일 현재의 등록기간동안 학생 인원 1392354명(명) 중 6588명(명)이 등록하지 않았고, 서울 캠퍼스는 6311명(명) 중 314명(명)이 등록하지 않았고, 수원 캠퍼스는 633명(명) 중 59.2%가 등록하지 않았다.

KAIST 기숙사 임대

2인 1실 기준, 1백28명 입실

우리학교는 올해부터 한국과학기술원으로부터 기숙사의 기숙사인 '배경사'를 임대한다.

이번 학기에 임대한 기숙사는 1개동 64실로 2인1실을 기준으로 하여 모두 128명이 지

년 2월 입실하였다. 학과교지의 거리는 길어서 20분 정도이며 화장실이 따로 배개 시설을 부실 식탁에서 해결할 수 있고 대청 이용도 가능하다. 입실비는 4개월 계약일 경우 연당 8만원이고 6개월 계약일 경우 연당 9만원이다.

입주자 선정기준은 성적과 거주지로부터의 거리이다. 이번 학기의 경우 개학을 앞두고 계약이 체결되는 편으로 재학생인 경우 다 과내에서 주치를 받아 선발하였으며 신입생의 경우엔 상의의 신청자 중 선발된 2백여명의 학생 중 성적과 거주지로부터의 거리를 고

려하여 선발하였다. 학생처는 2학기에 2개동 1434실을 계약하여 2868명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해 계획이다.

한국과학기술원측은 학교를 유 차원으로 기숙사 임대하기로 하여 그 대가로 우리 학교와 고려대, 한국외국어대학교에 유포에 유포한다. 정협 끝에 우리 학교가 선택되었다. 계약기간은 1년이며 재계약할 수 있다. 학생처 운영에 대한 학과 부담으로는 입실비를 비롯하여 건물유지비, 관리직비용이 있다.

배정자와 상의의, 학기등의 하를 비교하여 다음과 같다.

구분	KAIST	상 의	일반 학숙
수용 학생 수	128명	44명	44명
사 용 면적	2인 1실	4인 1실	2인 1실
입 실 비	9만원	5만원	25만원
식 대 대 (1식)	125만원	8백 88원	포함됨
대 청 비	4천원	5천원	2~3천원

"21세기를 준비하는 경희의 힘찬 발돋움"

우리 경희인들은 개교 45주년을 맞이하여 남다른 감회에 젖었다.

그것은 '문화세계의 창조'라는 교시에서 온갖 어려움을 헤치고 불굴의 경희정신 하나만으로 반세기의 짧은 역사에도 오늘을 이룩해낸 때문이었다.

오늘의 경희를 가리켜 해외문에서는 '국동 교육사의 기적'이라 극찬한 바 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머물지 않을 것이다.

21세기의 위대한 경희를 그리며 개교 50주년을 준비할 것이다.

개교 50주년이 되는 1999년까지 경희발전을 위해 100억원을 모금하고자 합니다.

명예를 아끼려! 하나의 벼들이 되어 경희의 명맥을 지킵시다.

경희발전의 위대한 전전전! 우리 50주년 기념 사업(금과 경희)의 오랜 후원자였던 대당당 원장을 위한 50억과 경희(금)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경희(금)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국민은행: 010-01-0618-642
신협은행: 17301-271-209
우 회: 031-01-396711
우 회: 012336-0025556
(매금주는 각 계좌별 공회 "경희대학교"입니다.)

경희발전의 위대한 전전전! 우리 50주년 기념 사업(금과 경희)의 오랜 후원자였던 대당당 원장을 위한 50억과 경희(금)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경희(금)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국민은행: 010-01-0618-642
신협은행: 17301-271-209
우 회: 031-01-396711
우 회: 012336-0025556
(매금주는 각 계좌별 공회 "경희대학교"입니다.)

경희발전의 위대한 전전전! 우리 50주년 기념 사업(금과 경희)의 오랜 후원자였던 대당당 원장을 위한 50억과 경희(금)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경희(금)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국민은행: 010-01-0618-642
신협은행: 17301-271-209
우 회: 031-01-396711
우 회: 012336-0025556
(매금주는 각 계좌별 공회 "경희대학교"입니다.)

경희발전의 위대한 전전전! 우리 50주년 기념 사업(금과 경희)의 오랜 후원자였던 대당당 원장을 위한 50억과 경희(금)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경희(금)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국민은행: 010-01-0618-642
신협은행: 17301-271-209
우 회: 031-01-396711
우 회: 012336-0025556
(매금주는 각 계좌별 공회 "경희대학교"입니다.)